

#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글로벌 경쟁력 갖춰

우수한 의료기술 · 저렴한 가격 · 신속한 진단 및 치료 등 장점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개발팀 양지영 연구원

## 우수한 한국의료 기술, 국부 창출의 미래 성장산업

의료산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국부창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OECD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시설과 장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역시 의료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잘 구축되어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적절한 의료비와 우수한 의료기술은 건강검진,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고난도 질병치료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세계 보건의료시장에서 점차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한국의료의 우수성은 크게 의료기술, 가격, 의료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의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료기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신속한 진단 및 치료시간, 첨단 의료장비, IT 기반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에서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7대 암 생존율은 의료 최강국으로 알려진 미국보다도 앞서고 있으며(위암 : 한국 65%/미국 26%, 간암:한국 25%/미국 14%), 96%에 이르는 간이식 성공률은 미국 등 선진국 평균 성공률 85%보다 앞서있다. 또한 뇌졸중 치료는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체계화된 의료전달시스템과 함께 IT기반의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 역시 질

■ 표 1. 암 5년 상대생존율 국가별 비교

구분	한 국 <sup>1)</sup>	미 국 <sup>2)</sup>	유 럽 <sup>3)</sup>	일 본 <sup>4)</sup>
갑상선암	98.1	97.3	86.5	92.4
위암	57.4	26.0	24.1	62.1
유방암	88.2	89.0	81.1	85.5
자궁경부암	76.8	64.4	58.8	70.2
대장암	66.3	65.0	53.9	68.9
간암	19.7	13.8	8.6	23.1

1)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암 현황, 2011

2) SEER(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Cancer Statistics Review 1975-2007, National Cancer Institute.

3) Survival for eight major cancers and all cancers combined for European adults diagnosed in 1995-99:results of the EURO-CARE-4 study. Lancet Oncol 2007;8: 773-83

4) National Cancer Center in Japan, Cancer statistics in Japan 2009





높은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 대형병원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대기시간과 함께, One-stop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점들에 반해 심장질환, 관절수술, 위이식 등 주요 질환의 의료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약 1/3, 일본의 2/3가량으로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한국의료의 국제적 경쟁력은 적절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약 3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환자수는 2009년 60,201명, 2010년에는 81,789명, 2011년에는 122,29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외국인환자유치 100만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주변 경쟁국가인 태국, 싱가포르의 외국인환자 증가율과 비교하면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로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료의 국제적 역량

한국의료의 국제화는 세계 의료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의료산업은 고용창출과 외화 획득이 동시에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보건 의료산업이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해외환자유치,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을 비롯한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이 국부창출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 성장 산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국제 의료서비스 산업은 Post-IT 시대에 가장 높은 부가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 자원은 우수하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 동안 공공성을 중시하며 국내수요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국부창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의료지원을 받았던 수혜국가에서 선진 의료 국가로 빠르게 발돋움하면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중동,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자원부국의 해외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낙후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높아지면서, 선진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첨단 IT기반의 한국의료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그 우수성과 효율성에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수준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료는 IT 기반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통해 중증 질환 치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가 간 보건 의료분야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의료는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 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중동국가들과의 직접적인 환자송출 계약체결, 보바스 병원 두바이재활센터 위탁운영, UAE군과의 MOU체결 등 국가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며,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진출을 견인해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증동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국부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세계 16개국에 국내 85개 의료기관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국내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 국내 총 37개 병원이 국제의료평가위원회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획득한 것이 좋은 예이다.

### Medical Korea,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 역할 기대

하지만,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의료서비스를 국제 수준으로 더욱 향상시키고 국내 우수 의료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련 제도 지원 및 인프라 향상을 위해 2012년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방안」이 마련되어 발표되었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핵심 10대 과제는 2020년까지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추진과제로 ▲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 병원 해외 진출 장벽 해소 등이다.

즉,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으로, 이를 통해 해외환자유치-병원해외진출간의 상호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진출 기반을 제공하여 효율적 역할 분담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로 유치채널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등 해외환자 유치업체를 다변화하고 유치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외 송출환자 유치 채널을 확보하고 해외 우수 병원과 글로벌 제휴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중심의 고부가가치 환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의료서비스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주요인사 대상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며, 외국지사 초청 및 연수 프로그램등의 의료인력 교류를 통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접속 예약 및 정보 제공 체계가 가능한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환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부대서비스를 제공, 의료관광 융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해외환자의 치료 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환자유치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에 적합한 숙박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가 및 수수료를 결정하고, 편법과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해외환자 진료수입을 파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장치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확대해가며 의료기관 인증 대상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해 갈 예정이다.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적합한 맞춤형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한편, 모험자본 투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병원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병원 진출과 연계하여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 IT 시스템 등 동반진출도 꾀할 것이다. 병원진출을 위한 투자장벽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해외병원 투자 촉진을 위한 법령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의료인력의 해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진출 대상국의 의료 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의료기관은 외국 인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가고 있다. 즉, 한국의료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 의료강국으로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며 국부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글로벌 의료시장을 선도하는 Medical Korea

이를 위해 Medical Korea는 한국의료의 국제적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 의료기술의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병원해외진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즉,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안으로는 해외유치, 밖으로는 병원 해외진출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켜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료브랜드 Medical Korea 해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통해 세계 속 의료강국으로 국가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